

서남해 청정갯벌이 만든 ‘명품소금’… 세계가 인정



④ 신안 천일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면서 식용소금 수요도 천일염에 집중되고 있다. 천일염은 단연 전남 서남해안의 갯벌에서 나는 것을 최고로 친다.

서남해안 갯벌은 각종 미네랄과 유기물이 풍부해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염화나트륨 순도가 80~86% 정도로 낮다.

몸에 해로운 나트륨은 낮은 반면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은 수입산에 비해 3배 정도 높아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다.

국내 갯벌 천일염의 본산지는 단연 신안이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33만 5345t의 천일염이 생산됐는데 이중 87%인 29만 294t은 전남산이었다. 이 가운데 신안에서 낸 것은 23만 720t으로 전국 생산량의 69%와 전남 생산량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신안 천일염은 2008년 3월 28일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가 바뀌면서

서 폭발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08년 12월 신안군 일원이 천일염 특구로 지정되고 2012년 11월 소금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천일염의 산업화 기반이 잇따라 조성된 점도 성장세의 기폭제가 됐다.

2007년 kg당 200원이던 신안 천일염 가격은 5년만에 420원으로 2배 이상 올랐고 매출액도 400억원이던 것

유통구조 개선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신안 현지에 생산공장과 유통회사를 설립한 것이 일조했다. 대상 청정원과 CJ 제일제당은 2009년과 2010년 신안 생산자들과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산지종합처리장을 건립해 프리미엄 소금시장의 주인공으로 신안 천일염을 알리고 있다.

나트륨 낮고 미네랄 풍부 고혈압 예방효과

지난해 23만7209t 생산…전체 69% 차지

이 1085억원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일본 원전사태가 터진 2011년에는 안전 수요까지 더해져 한때 kg당 1000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천일염 명품화 사업이 밀바탕이 됐다. 신안군과 전남도는 토관 천일염 등 우수 천일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업전 바다재와 폐슬레이트를 친환경 재료로 교체했다.

신안군은 별도로 252억원을 새로 투입해 천일염 명품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신안 종도 태평염전에서 열린 채염식 장면. 채염식은 한 해 첫 소금 생산개시 행사로, 신안군은 올해의 경우 10월 15일까지 천일염을 생산할 예정이다.

다양한 체험상품을 개발해 6차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보성·나주·강진·무안 농어촌 인성학교 선정

올해 처음 실시하는 농어촌 인성학교는 전국 28개소로 이 중 14개소에 도농교류협력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며 전남에선 4개소중 운영 체계 성과 시설수준의 적합성 등이 우수한 보성 오봉권역 및 강진 녹향월촌권역이 선정됐다.

이

농어촌 인성학교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향상하고 농어촌 가치와 중요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이

전남도 내에 선정된 농어촌 인성학교는 보성 오봉, 강진 녹향월촌, 나주 왕곡, 무안 월선권역이다.

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시설 및 주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이점 관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농어촌인성학교가 마을권역 사업 완료후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새로운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주민 공동소득 창출의 축제가 되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창포물에 머리감고 그네뛰고…

20주년 전남도농업박물관 13일 ‘단오 체험행사’



전남도농업박물관은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박물관 야외 초가마당 일원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단오날 민속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업박물관이 잊혀져가는 민족 고유 명절인 단오의 문화를 계승하고 선조들이 행했던 다양한 풍습과 민속놀이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업박물관은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민속 체험을 통해 옛 문화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야외 초가마당에 체험코너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창포 머리감기의 주재료인 실물 창포와 창포 뿌리로 만든 단오장(端午粧)을 비롯해 여려가지 전통 의상과 쓰개모자, ‘단오풍경’(혜원 신윤복 그림·간송미술관 소장)을 확대한 걸개그림 등을 전시해 옛 단오풍경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옛 여인들이 치장했던 아름다운 가체와 전통의상을 활용하고 대형 걸개그림(단오풍경)을 배경 삼아 기

사이에 둘을 끼워 놓아 대추 풍년을 기원하던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등 가수(嫁樹) 풍습도 체험할 수 있다.

김우성 관장은 “단오는 모내기

끌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祈豐祭)의 성격이 강해 악귀와 더위를 쫓는 신앙적 관습이 많다”며 “무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 황산·문내면 가뭄 걱정 ‘끝’

황산양수장 완공

고 있다.

31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07년 12월 시작됐다.

수량이 풍부한 금호호 물을 황산·문내면 농경지로 공급하는 대규모 농업기반 사업이다.

안순읍 영산강사업단은 “혹독한 가뭄이 발생하면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양수장을 완공하고 시험 운전했다”면서 “매년 응수난을 겪던 황산·문내 지역의 가뭄 걱정이 끝났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목포 웰빙공원 ‘인기’

목포시가 철도 폐선부지에 조성한 웰빙공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철도 폐선부지인 청호, 동목포, 이로지역에 산책로, 분수, 운동기구, 화장실 등을 갖춘 웰빙공원을 조성했다.

시는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6년부터 내년 완료 예정으로 연동광장~임성역 간 6.2km에 웰빙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완공한 청호, 동목포, 이로지역 웰빙공원은 주민들의 휴식·건강·만남의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징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